

고흥군, 소록도 천사 '제2의 마리안느·마가렛' 양성한다

도양읍 봉암리에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 공간' 조성 박차 박에 정신 계승 '희망 더하기 공모전' 등 각종 선양 사업도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봤던 마리안느 스티거와 고 마가렛 피사렛의 숭고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고흥군에서 펼쳐진다.

고흥군은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스티거와 고 마가렛 피사렛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발전해 제2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양성하는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소록도의 천사 작은할매 고 마가렛 피사렛의 갑작스러운 선종으로 고흥군민은 물론 전국민적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한

고인의 이타적인 삶과 박애 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양 사업의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군은 지난해 7월 공영민 군수 취임 후 두 간호사의 기념관 시설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쏟았다.

공 군수는 2008년 건축된 구 녹동휴게소 부지에 임시 조성됐던 기념관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그들의 봉사 정신을 계승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 공간 조성을 목표로 올해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전남도와 정부 관계부처, 국회 등 20여 차례 방문해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170억원을 들여 도양읍 봉암리

233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1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 영상교육관, 다목적 강당과 숙소(248명 수용)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오는 27일 소록도 나눔연수원에서 제3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과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청소년 희망 더하기 공모전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회적약자 차별,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학교폭력과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의 위기 속에서 두 분의 사랑과 헌신의 일생, 선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할 제2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2024년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고흥군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 설치된 소록도 천사 고 마가렛 피사렛 분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고흥군 제공)



이달 중 1000만 관광객 달성을 눈앞에 둔 여수시가 '여수밤바다 불꽃축제'(28일) 등을 열며 가을 여행 수요 잡기에 나선다. 지난 6~7일 열린 '2023 여수마칭페스티벌' 모습. (여수시 제공)

여수시 관광객 1000만 달성 눈 앞...누적 900만 넘었다

추석 연휴 기간 45만명 찾아

올해 900만명이 찾은 여수시가 '여수밤바다 불꽃축제'(10월28일) 등 굵직한 행사를 열며 1000만 관광객 달성에 나선다.

여수시는 올해 들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 10일 기준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추석 명절(9월28일~10월3일)에는 45만명이 여수를 찾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방문객보다 49% 급증한 규모다. 사흘 휴일이었던 '한글날 연휴'(7~9일)에

는 방문객 17만명을 기록했다.

여수시가 연휴 기간 일일 방문객을 분석하니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았다. 한글날 연휴 가운데서는 9일 방문객이 최다를 기록했다.

여수 방문객들은 여수엑스포, 돌산공원, 오동도, 루지, 여수 예술랜드 등을 찾았다. 향일암과 금오도를 포함한 남도, 하화도의 섬 지역도 많이 갔다.

여수시는 이달 초부터 '여수마칭페스티벌'과 '국제남도음식문화관전차' 등으로 가을 축제의 풍

성한 시작을 알렸다. 13일 개막하는 전국체전과 '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19~23일), '2023 여수동동북축제'(21~22일), '여수밤바다 불꽃축제'(28일) 등을 열며 여수의 가을 분위기를 절정에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여수가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축제와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1000만 관광객 달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710원

올해보다 3.2% 증가

여수시가 2024년 생활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만 71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이다.

시는 최근 열린 여수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최

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1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여수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 1만 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

만 380원보다 330원(3.2%)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8.6%) 추가된 금액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생활임금 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물가 상승 등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동편제 고장 구례서 13~15일 '동편소리축제'

서시천 체육공원·오일시장 일원

동편제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구례동편소리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구례동편소리축제는 이 기간 서시천 체육공원과 구례 오일시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 주제는 '생명과 평화의 노래'이다.

축제 첫날 오전 10시 구례 오일시장에서는 '거리예술공연'이 진행된다.

제이아이 예술단의 줄타기와 길놀이 등 전통 놀이 한마당, 송다민 환술 극단의 환희, 박정욱 명창의 배뱅이굿, 김관희 파이어 앨범 공연 등이 선보

여진다.

같은 날 오후 7시 서시천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는 한국해금앙상블이 개막제 무대를 꾸민다.

장문희·이난초 명창과 최예림, 한예종 안덕기 무용단 알티밋, 월드뮤직 그룹 공명 등이 전통과 현대예술을 접목한 무대를 올린다.

이튿날 오후 4시부터는 박정선, 강민지, 양혜인의 동편제 판소리를 즐길 수 있다.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무대를 꾸미고 구례 출신 인기 소리꾼 김산옥이 '구례의 소리' 공연을 한다.

국악 인재들의 등용문인 '27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 예선전도 같은 날 삼진아트홀,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오후 7시에는 '젊은국악인·명인명장전' 이서사전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5호인 최잔다·김수연 명창의 공연과 함께 젊은 피리 연주자의 열정적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5일 삼진아트홀에서는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본선이 치러진다. 대통령상인 판소리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을, 고수 부문 대상(문화부 장관상)은 300만원을 준다.

최성현 구례동편소리축제 추진위원장은 "올해 구례동편소리축제는 구례만의 이야기, 구례만의 특성을 담은 전통 판소리와 다양한 현대예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예술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기초연금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호평

광양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기초연금사업'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

2023년 기초연금사업 유공기관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국단위 평가를 실시했다.

광양시는 기초연금 수급률·신청률 및 예산 집행 우수실적 등 11개 항목 사업실적과 보건복지부 업

무 협조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전국 18개 기초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579억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6718명에게 매월 약 48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세 생일 도래자에 대한 사전 신청 및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어르신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기초연금제도 홍보로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계시대 의무화 정당 현수막 난립 차단

조례 개정 추진...5개 이내로 제한

순천시가 정당 현수막 지정 계시대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는 지정 계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별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는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민 의견을 듣고 조례 규칙 심의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심 가로수화단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할 근거가 생겼다.

순천시는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1260장의 정당 현수막을 정리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정인화(왼쪽 세번째) 광양시장과 박희석(오른쪽 세번째) 포스코리튬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등이 지난 10일 '지역인재 채용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포스코리튬솔루션 지역 청년 취업 협약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확대

광양시와 포스코리튬솔루션이 지역 청년 취업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시와 포스코는 지난 10일 광양시청에서 지역인재 양성·채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양시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포스코리튬솔루션은 광양 지역 청년을 우대 채용하고 전문 교육 지원, 현장 견학 기회 제공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포스코리튬솔루션은 올해 6월 월촌산단에 연간 2

만 5000여 명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을 착공했다.

오는 2025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준공 뒤에는 직영 140명, 협력·용역인력 포함 총 21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4월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과 채용약정 협약을 맺어 교육생 50명 모두 취업 연계했다.

지난달에는 신산업 소재 분야 투자기업인 포스코퓨처엠과 지역인재 양성·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채용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